

빌립보서
#C2607
Pastor Chuck Smith

2장

If there be therefore any consolation in Christ, if [there is] any comfort of love, if [there is] any fellowship of the Spirit, if [there is] any bowels [compassion] and mercies, fulfil ye my joy, that ye be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f one accord, of one mind (2:1-2).

And so Paul's appeal to them now, a very powerful appeal: if there is any consolation in Christ, if there is any comfort in love, and surely there is consolation in Christ, how we are consoled by Him, how we are comforted in the love, and especially the time of death, the fellowship in the Spirit, the compassion and the mercy fulfill my joy. As John said,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the children walk in truth" (3 John 4). Fulfill my joy, that you be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f one accord and one mind.

And let nothing be done through strife or vainglory; but in lowliness of mind let each esteem others better than themselves (2:3).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1-2)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강한 간청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많은 권면과 사랑을 받습니까. 특히 죽음을 당했을 때, 성령과의 교제 등,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삼 4)”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2:3)

You want to be great in God's kingdom? Learn to be the servant.

It is interesting to me, how that these words of Paul are so often disregarded by the church. I have shared with you before how my break came with the denomination, over the fact that they announced to the pastors that competition was carnal motivation, but we must realize that the majority of the people we minister to are carnal, and thus, have to be carnally motivated. So we have to use competition to motivate them. Well, competition is striving, because we were to call another pastor and challenge his church to an attendance contest. "We are going to strive with you to see who can have the largest attendance." And then the church that lost was going to have to treat the church that won to a dinner. And the church that won was going to be honored.

하나님의 왕국에서 높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종의 자세를 배우십시오.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의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는 빈번히 등한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제가 왜 교단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들에게, 경쟁은 육신적인 방법이지만 우리가 목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신자들이므로 목회자들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시켜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은 다름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의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출석 교인수를 경쟁하여, “누가 제일 많은 출석 교인을 가질수 있는지 경쟁해 보자.” 그리하여 진 교회는 이긴 교회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이긴 교회는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You know, "We want to be first so we can be honored." Vainglory and strife, or striving for vainglory. And how many times, that is the motive that is being used with people within the church: get them into competition, get them into striving, and get them into vainglory. "We are going to put the names up here on the wall. In each windowpane we are going to inscribe your name. We are going to put stained glass in. The Lord has told me we should have stained glass windows, and you know, you can buy your window and put your name or the name of your loved one in a window." And everybody that comes, as they look down the window, they will see your name. Vainglory.

“우리가 높임받기 위해선 꼭 일등을 해야해.” 헛된 영광이며 헛된 노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것이 동기를 부여하여 교인들을 경쟁시키고, 다투게 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하는 육신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벽에 부치려고 합니다. 스테인 유리 창문을 만드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스테인 유리 창문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창문을 사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와서 창문을 볼때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보게 될것입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Let nothing be done through strife and vainglory. Those are wrong motivations for serving God. But in lowliness of mind, just esteem others better than yourself.

Look not every man on his own things, but every man also on the things of others [or the needs of others](2:4).

Don't just look at your own needs, but look at the needs of others around you.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2:5):

And God minister to us now by Your Spirit, because we are treading in the Holy of Holies. We are getting down to the heart now of the whole issue. The issue of Christianity: my attitudes, my attitudes toward myself and my attitudes towards others. What is the mental attitude that I have towards myself? What is my mental attitude towards others?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맙시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 잘못된 동기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2:4)

여러분이 필요만것 만 볼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살펴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5)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 귀착합니다. 기독교의 문제: 나의 자세,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자세와 남을 향한 나의 자세. 내 자신을 향한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마음 자세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Do you know what he had the nerve to ask me to do? I told him I wanted to serve the Lord, and Romaine gave me a broom and told me to sweep the sidewalk. I hire people to sweep my sidewalks. Doesn't he know who I am? How much I have contributed to the church?"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thought it not robbery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2:6):

He didn't grasp, have to grasp equality with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John 1:1). So being in the form of God, and not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Now you talk about, "Hey, don't they know who I am? Don't they know how important I am? They didn't even offer to carry my suitcase. Don't they know?"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and thought it not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글쎄, 정신없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빗자루를 주면서 교회마당을 쓸라고 하더라구요. 우리 집도 사람을 고용해서 치우는데, 내가 누군줄 모르는 가보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6)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 내 가방을 날라 주겠다는 제안도 안하다니. 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But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or in the Greek, emptied Himself], and took upon him the form of a servant, and was made in the likeness of men (2:7):

Well, we see now the steps downward as He emptied Himself: starting with God, equal with God, and yet, He emptied Himself and He came in the form of a servant, and was made like men.

And being found in fashion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unto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 (2:8).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2:7)

우리는 여기서 그분이 자기를 비울때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8)

And so, from glory and equality with God to that cruel Roman cross, hanging there with the jeers and the anger of the crowd, despised and rejected by man. What a tremendous downward, I mean from the highest height, down to death on a cross, surrounded by murderers. That tremendous plunge Jesus was willing to take for you.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erefore God also hath highly exalted him (2:9),

Now we see the steps out. For God said, "I will not leave your soul in hell, neither will I allow the Holy One to see corruption" (Psalm 16:10). And God has highly exalted Him.

and [He has] given him a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of things in heaven, and things in earth, and things under the earth; and that every tongue should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2:9-11).

하나님과 동등함과 영광에서부터 떠나 잔인한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있을때, 성난 군중들은 조소했고, 사람들로 부터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살인자들에게 둘러 싸인 십자가에서 죽음의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신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2:9)

밖에서 이루어 지는 단계를 봅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시 16:10).”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2:9-11)

So from the glory to the glory, but the cross in between. He emptied Himself. Now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in Christ Jesus. That willingness to set aside what you are, to become a servant to others. Not esteeming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should, just considering yourself privileged to be a servant of Jesus Christ. "Humble thyself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shall lift you up" (James 4:10). Christ the example, humbling Himself, but wherefore God has also highly exalted Him and given Him a name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Jehoshua, every knee will one day is going to bow, every tongue one day is going to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

그러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지만 십자가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지 말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 4:10)” 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 곧 예호슈아 (**Jehoshua**), 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Now, you may not want to make that confession now. You may say that you are the lord of your own life.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My head is bloody but unbowed." One day you are going to confess Jesus Christ is the Lord. Those people who speak so despairingly of Him now, those people who still mock His name, those who use His name so carelessly in their profanity, those who have spoken out so adversely against Him, one day they too shall bow their knee, and they shall confess Jesus Christ is the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The problem is that in that day their confession will not be unto salvation. You see, Paul tells us that if we confess with our mouth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 and believe in our hearts that God has raised Him from the dead, we will be saved, for with the mouth man confesses unto salvation. But that will not be so in that day, the confession will not be to salvation. It will be of condemnation of themselves. "Yes, He is Lord. I was wrong in rejecting Him as Lord of my life."

당신이 지금은 그 고백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내 운명을 좌우한다.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내 머리에 피가 날지라도 머리 숙이지 않겠다.”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그분에 대하여 절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나 아직까지 그의 이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그분의 이름을 함부러 모독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그분을 거역하는 모든 이들이 어느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날에는 그들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The problem is that in that day their confession will not be unto salvation.)**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날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정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제 삶의 주님으로서 그분을 거부하는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Wherefore, my beloved, as ye have always obeyed, not as in my presence only,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2:12):

Now, unfortunately many people stop right there, and we get a tremendous exhortation on works and the importance of you working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And rather than working out your salvation, it is usually interpreted, "work for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and you're exhorted into all the works that you ought to be doing for God in order to be saved. And those who are emphasizing a "works" gospel, which is not a gospel, because you tell me I have to work to be saved, that is not good news, that is bad news. They use this text so often, but they don't go into the very next verse where He declares: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2:12)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중단하여, 일에 더욱 비중을 두고, 당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놀라운 권고를 받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해석하여 구원 받기 위하여 모든 일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일의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으려면 내가 일해야 한다고 당신이 나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입니다. 그들은 곧잘 이 구절을 인용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For it is God which worketh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2:13).

That is what it is all about. You see, God said to Jeremiah when Israel had totally failed in the keeping of the law, "There is going to come a day, Jeremiah, when I am no longer going to write the law on these tables of stone, but I am going to write my law in the fleshly tablets of their heart." It is He who works in you to will.

How does God reveal His will to me? He reveals His will by the desires that He places in my heart, not the desires that I necessarily have in my heart that come from me. But He places in my heart His desires, so it is He that works in you both to will. God puts it in my heart to do something. God gives me the desire, the yearning to do a particular work, to go to a particular place. And I discover that that which I desire is actually God's revealing to my heart, that which He is wanting me to do. And so, He puts it in me to will, and then He gives me the capacity to do of His good pleasure.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2:13)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거역할 때 예레미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더 이상 돌판에 율법을 쓰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대신 그들의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떻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나타내십니다.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소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소원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를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언가를 하도록 주십니다. 그 일을 하기 원하는 소원, 또는 어떤 장소에 가기 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나타내셨다는것과 하나님이 내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는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그의 뜻을 나의 의지로 주신다음 그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Several years ago I was supposed to speak in Ventura on a Sunday evening, and I decided to go up on Saturday and spend the night with my aunt in Santa Barbara. My Aunt Lois, in fact, who is now moved down into the area that we can be near her. And she made such fabulous enchiladas, and I called her and said, "Put the enchiladas on. I will be up for dinner, spend the night with you, and then I will come back to Ventura tomorrow night and speak." So, I took off for Santa Barbara. Heading up towards the Ventura freeway, when I got to Sunset Boulevard I thought, "Oh, this is such a beautiful day. I might as well drive along the coast, drive along Sunset Boulevard to Pacific Coast Highway. It is such a beautiful day I will just put the top down on my car, and I will cruise up through Malibu and go up Santa Barbara that way and just look at the ocean, because I love to stop up there at Point Magu and watch the surf come in and just the beauty of that drive."

몇년 전 저는 벤츄라 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 이모님께서 산타 바바라에 사셨기에 토요일에 올라가 이모님댁에 묵은 후 주일 설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이모님 로이스는 이 쪽으로 이사하셔서 우리 가까이 살고 계십니다. 그 이모님은 멕시코 음식 엔칠라다를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엔칠라다를 만들어서 제가 올라 가거든 저녁으로 주세요 거기서 자고 내일 저녁에 와서 말씀 전할께요” 라고 말했습니다. 산타 바바라로 가려고 벤츄라 고속도로로 향해서 가다가 썬셀 불루바드에 왔을때 생각 하기를 ‘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군. 썬셀 불루버드에 가서 해변도로를 타고 가는게 좋겠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차의 뚜껑을 내리고 말리부를 지나서 산타바바라를 그길로 가면 바다를 볼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산타 무구에서 정지하여 파도가 밀려 오는것을 보며 아름답 다운 여행길을 즐길생각 이었습니다

And I thought, "I just want to go the coast." I am such a water nut, and just enjoy the beach. So, I wound all the way down Sunset Boulevard, and as I was winding down Sunset Boulevard, I thought, "My, I don't remember it being this far down Sunset to the Coast. I probably made a mistake. I probably should have stayed on the inland route. Oh, well."

그리고 생각하기를 “해안 길로 가고 싶다.” 나는 물을 너무 좋아하고 바닷가에 가기를 아주 즐겼습니다. 그래서 썬셀부루버드로 돌아서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 가면서 “야, 썬셀부루버드에서 해안 도로가 이렇게 멀다고 기억하지 않는데. 아마 내가 길을 잘 못던것같아. 아마 내가 안에 있는 선으로 갇어야 했는가봐. 할수 없지, 뭐.”

And as I pulled on to the Coast Highway, there was a couple there hitchhiking, and I felt rather selfish in this convertible all by myself and all, and here they are hitchhiking, and so I don't pick up hitchhikers as a rule, but I stopped and I picked them up. And I started to share with them about Jesus Christ. By the time we got to Ventura, we pulled over and they accepted the Lord. And I took them by the church where I would be speaking the next night, and I said, "Look, if you show up here tomorrow night, I will be glad to meet you." The fellow was looking for a job. He was a farmer, and he had been looking in Los Angeles for a job. I said, "They don't have any farms in Los Angeles." So I bid them farewell, drove on up to Santa Barbara, and like so many experiences, you think, "Well, probably I will never see them again."

해변도로를 들어설 즈음에, 낯선 부부가 차를 태워달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당시 제 포장지붕의 차를 혼자 만 타고 차를 태워달라고 손을 드는 사람들은 안태워 주기로 마음에 결정했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태웠습니다. 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고 벤치라에 도달했을때에는 차를 도로가에 세운 다음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이튿날 저녁에 내가 설교할 예배당 곁에 서 “보세요, 당신들이 내일 저녁에 여기에 오신다면 기쁘게 만날수 있을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직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부였는데 로스앤젤스에서 직장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스에는 농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작별을 고한후 산타바바라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경험에 비추어서 “아마 다시 볼 수 없겠구나”고 생각했습니다.

But the next night when I was at the church speaking and I gave the invitation, they came forward to accept Jesus Christ publicly. And the man in the church, the elder who came down to pray with them, happened to be the foreman of the Del Mar Lymanair Ranch, and happened to be needing an extra hand. It had housing and everything else. So, they came up afterwards and they came up with Mr. Jenkins, and they said, "Oh, guess what has happened to us? This man who prayed with us, he is the foreman of this ranch." I knew that, and he had given them a job, and then I thought back yesterday, as I was driving up and I got that sudden inspiration, "Why not go by the coast," I realized it was He who puts it into my heart to will. That thought was actually planted by the Lord, because He knew that that couple from Montana, really desperate and in need, basically for a real experience with Jesus Christ, were waiting for someone to come and share the truth with them.

그러나 그 다음 날 저녁에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한후 초청했을때 그들은 앞으로 나와서 대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 있는 남자 장로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내려왔으며 그분이 델마 라이마네어 렌치라는 농장에 감독으로 일하시는 분이 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 일꾼이 한 사람 더 필요했습니다. 그곳은 숙식을 모두 해결해주는 농장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후에 그들이 올라와서 쟈킨씨를 만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분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셨는데 이 농장의 감독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 부부에게 일터를 준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운전할때 갑자기 “해안 도로를 타고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내 마음에 주신것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생각은 실제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던 생각이며 그 이유는 몬타나주에서 온 이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절실히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와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것입니다.

And so,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hen to do. He gives you the capacity to do, but He plants first of all the will in your heart. And this is the way that God leads us. So often it is by a sudden inspiration, a thought, an idea, God is working in you to will, and then to do. And so again, it is initiated by God.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but it is God who is actually working in you. It is God who has put that yearning in your heart. It is God that has given you that desire. And now God will work out the ways by which that might be fulfilled. For He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hen to do of His good pleasure.

그러므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행하도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에, 갑작스런 영감과 생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만, 실제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쁜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So, the net result is that my pleasure is doing His pleasure because He put the desire in my heart to do it, and so it becomes, really, the desire of my heart or my life, and thus the pleasure of my life, and thus I can say with Jesus, "I delight to do thy will O Lord." Why? Because He has planted it in my heart. It is God who is working in you.

Therefore,

Do all things without murmurings and disputings (2:14):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심으로, 그 소원이 내 마음과 삶의 소원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내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2:14)

Now, I have to confess that I don't always succeed in this particular injunction. There are certain tasks that I do that I catch myself murmuring. "I wonder where Romaine is, you know, I have to clean up this mess. Where is Romaine, you know, he is not around to clean up this mess." You know, and I think, "Hum, I have got better things to do than to sweep up this mess here, you know." And so I don't always pass with an "A" on this particular phase. I do catch myself at times murmuring over some of the pressures, over some of the things. But God is working in my heart in that. Because when I do things and I am murmuring, He usually speaks to me and says, "Why are you doing it?" And, of course, I have to respond, "I am doing it for You, Lord." And then He says, "Quit your murmuring, or quit doing it."

사실, 저는 이런 특수한 명령에서 잘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 불평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로메인은 어디갔지. 내가 이 쓰레기를 다 치워야하니. 도대체 로메인은 어디 있어. 그가 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흠, 나에겐 이 쓰레기 치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면에서는 A 학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일로 인해서 압력을 받을 때에도 불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제 속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제가 불평할 땐,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왜 네가 그 일을 하느냐?” 하시면, 저는 당연히, “주님을 위해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불평을 그치지 않으려면 그 일을 그만 두어라”고 하십니다.

You know, God doesn't want any griping service.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for the glory of God, and do it as unto the Lord, and do all things without murmuring or disputing.

That ye may be blameless and harmless, the sons of God, without rebuke,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perverse nation [generation], among whom ye shine as lights in the world; holding forth the word of life; that I may rejoice in the day of Christ, that I have not run in vain, neither labored in vain (2:15-16).

하나님은 억지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에나 행동으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을 위해 하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2:15-16)

So, Paul is exhorting them on how they are to serve the Lord. And the effect of their service to the Lord is the rejoicing in the heart of Paul, realizing that his ministry to them has been an effective ministry, for he has brought them into the attitude and the mind of Christ, who was willing to step from His glory into this sin-cursed world to hang on a cross. Let this mind be in you. And when you see

the work and the effect of the work of God in the ministry in the hearts of the people, it creates great rejoicing. Paul said,

Yea, and if I be offered [if they take my life] upon the sacrifice and service of your faith [if I die for this], I joy, and rejoice with you all (2:17).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의 사역에 열매가 있었고, 영광을 버리고 죄 많은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신 그리스도의 자세와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목회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크나 큰 기쁨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찌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2:17)

I rejoice because of what God has done with you. I die happy knowing that God has worked in your life through my ministry.

For the same cause also do ye joy, and rejoice with me (2:18).

If they take my life, rejoice with me, don't weep.

But I trust in the Lord Jesus to send Timothy shortly unto you, that I also may be of good comfort, when I know of your state. For I have no man likeminded, who will naturally care for your state (2:19-20).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통해 너희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알기에 죽어도 행복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18)

만일 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9-20)

Now, this is very interesting statement of Paul, for he is sending Timothy because Timothy shares his heart, his burden. And Paul said, "I don't have any one else who really has the same heart that I have, for you and for the work." It is really very difficult to find someone who has the same heart as Paul the apostle. One who is willing to give himself so freely. One who is really looking so little for himself, but always looking for the needs and the welfare of others. It is hard to find that kind of a minister, one that is really so careful and circumspect about the things of the Lord. Paul said, "I really don't have anyone other than Timothy who has the same mind, the same heart and concern for your state as I have."

For all seek their own, not the things which are Jesus Christ's (2:21).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디모테가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그의 짐을 들어 줄수 있기에 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실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와 사역을 생각할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돌보기 보다는 항상 남의 사정과 필요를 돌보며, 주님의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자를 찾기 매우 힘듭니다. 바울은, “디모테 외에는 나와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너희 사정을 걱정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1)

What sad indictment against the ministers, even those that were accompanying Paul, and with Paul. "I send Timothy because he has my heart for you; he cares for you as I do. Most everybody else really care for themselves more than they care for you. They are seeking their own welfare above your welfare." That is, the mind that was in Christ is not in them, who emptied Himself.

But ye know the proof of him, that, as a son with the father, he hath served with me in the gospel. Him therefore I hope to send [him] presently [soon], so soon as I shall see how it will go with me (2:22-23).

As soon as I am able to free him, I am going to send him to you.

But I trust in the Lord that I also myself shall come shortly (2:24).

바울과 함께 일하고 지낸 동역자들에 대한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디모테는 너희에 대한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돌보는 것처럼 너희를 돌볼 것이기에 그를 보낸다. 다른 이들은 너희보다 자기 자신들을 더 돌보며, 자기의 유익을 더 찾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비우기까지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속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테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22-23)

그가 자유롭게 되는 대로 빨리 너희에게 보내겠다.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24)

You know, if Caesar lets me out of here, I hope that I will be able to come.

Yet I supposed it necessary to send to you Epaphroditus, my brother, and companion in labor, and the fellow soldier, but your messenger, and he that ministered to my wants (2:25).

In other words, he brought to me the offering that you sent, and ministered to my needs.

For he longed after you all, and was full of heaviness, because that ye had heard that he had been sick. For indeed he was sick nigh [he was near] death: but God had mercy on him; and not on him only, but on me also, lest I should have sorrow upon sorrow (2:26-27).

가이사가 나를 놓아주면, 나도 너희에게 갈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2:24)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보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가 나에게 전해 주었고, 나의 필요한것을 채워 주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 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26-27)

So Epaphroditus almost died. He was extremely sick, and they had heard of his sickness and were worried about him. And so Epaphroditus was concerned, they were worried for him, because of that sickness.

Interesting, Paul had a tremendous ministry of healing. Miracles were wrought, and yet, he speaks of Epaphroditus almost dying with his sickness. Why doesn't God heal everybody? Why is it that God heals some and does not heal others? Hey, we will never know the answers to that. Beware of those who have pat answers on the subject of healing, on the subjects of the works of God or the whys of God.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많은 이들이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걱정을 하고 그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아프기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기적을 일으키는 엄청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치시고 또 다른이들은 그렇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없습니다. 치유에 관한 답을 알고 있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유, 왜에 관한 질문들에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God says, "My ways are not your ways, they are beyond your finding out." We really don't know, and it is wrong to place the guilt upon the sick person. That's the last thing they need, for you to come in and say, "Well, brother,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you, some sin in your life that you are so sick. You just don't have enough faith, and if you only believed God, you could get up out of this bed and walk. You have been making the wrong confession. Don't say you feel bad, say, 'I feel great.'" It is not going to do it.

하나님께서, “내 길을 너희 길과 다르며, 너희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My ways are not your ways, they are beyond your finding out.) 우리는 진실로 알지 못하며, 환자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찾아와, “형제님, 당신이 뭔가 잘못을 했기에 그 죄가 당신에게 병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을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고백을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하지 말고, 아주 좋다고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최후에나 할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병을 낫게 하지 못합니다.

God does heal; I believe that. I have been healed many times, I know that. But God doesn't heal everybody, I recognize that. And why, I don't know. I have known reprobates who have been healed; I have known extremely godly people who were not healed, but died. It has nothing to do with a person's righteousness. It has nothing to do with a person's faith. Healing is a work of God, and it is sovereign with God and it is in God's hands. It is wrong to put the burden upon the people who are sick or upon your relatives. And I thoroughly discount as junk the messages that God wills that everybody should be healed.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치유하지는 않으심을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릅니다. 타락했던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고; 아주 경건한 이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절대권이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나 그의 가족에게 짐을 지우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말은 철저히 무익한 말로 취급합니다.

So Paul said,

I sent him [Epaphroditus] therefore the more carefully, that, when ye see him again, ye may rejoice, and that I may be the less sorrowful. Receive him therefore in the Lord with all gladness; and hold such in reputation: because for the work of Christ he was nigh [near] unto death, not regarding his life, to supply your lack of service toward me (2:28–30).

So, he hazarded his own life in order to bring their help to Paul, and Paul appreciates it, and is sending him back with the commendation for his faithfulness. We can finish the book of Philippians next Sunday, and these next two chapters are classic. I'll tell you, they are so much. I just love them.

그래서, 바울을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2:28-30)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의 도움을 바울에게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고,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며, 그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다시 그를 보냅니다.

다음 두 장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빌립보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rest and abide with each of you through this week, that you might be
strengthened by His Spirit in your inner man, that you might receive the Spirit of
understanding and enlightenment, that you might be able to understand how much God
does love you, and His plan for your life, that you might live your life for Christ, and share
with Him in His kingdom forever. God bless you, children of the King. May you walk in
His love, and in His grace, in Jesus' nam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음
한 주일도 함께 하기를 바라며,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이해와 깨달음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지를 알고, 여러분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그분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